

낭만적 예술로 피어난 유럽의 메트로폴리탄, 빈

조두환 | 건국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시청 모습

유럽의 메트로폴리탄 빈

북유럽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육로와 도나우강이 만나는 지점. 1,200km 길이의 알프스 끝자락 레오폴트베르크가 푸른 도나우강가에 멈춰 섰다. 약 3,000년 전 현재의 국경선 안에 자리를 잡은 오스트리아는 BC 400년경에 켈트족, BC 200년 이후에 로마인, 167년부터 180년경까지 도나우강 북부의 게르만족이 들어와 5세기경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유럽의 강자로 우뚝 선다. 로마의 ‘빈도보나(Vindobona)’, 즉 경계진지라는 뜻의 도시 빈(영어로 비엔나)은 이후 조용한 성장을 거듭한다.

프랑크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칼 대제(742~814)는 이곳에 정착한 아바르족을 멸망시키

고 지역을 완전히 기독교-게르만화하면서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한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수도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에는 동서유럽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기도 하였다.

면적 415km², 인구 약 160만 명. 오스트리아의 전체 인구 810만 명 중에서 거의 1/4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에 살고 있다. 9개 연방주 중의 하나이자 연방의 수도이지만, 국토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가 안쓰러워 ‘참지는 사자’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다소 불리해 보이는 입지가 오히려 거대한 중부 유럽의 메트로폴리탄을 탄생시켰다. 빈의 역사는 곧 전 유럽의 역사였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빈은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수용, 통괄하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으뜸도시다.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로서 대형 금융기관 및 상사의 본점들이 이곳에 몰려 있다. 유서 깊고 화려한 건축물들, 박물관, 예술문화재들이 가득하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지방분권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중앙집중체제가 오랜 역사와 함께 퇴적되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등 UN 산하 국제기구들도 많고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도 자주 개최된다.

오스트리아는 전 국토의 약 2/3가 산악지대지만 수도 빈 주변은 보기 드문 평야지대다. 지리적으로 하나의 분지를 이루고 있어서 여름엔 몹시 덥고 겨울엔 춥다. 이 지역에는 일반 농업과 포도재배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GNP의 4%에도 못 미쳐 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그 대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 금융, 경영, 방위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이 크게 발달했다. 주택, 도로, 관광, 패션, 산업시설도 빈의 경제발전에 큰 몫을 한다.

빈은 오스트리아 전체 공장의 1/4이 입지하고 있는 공업도시다. 전기, 기계, 인쇄, 화학, 식품, 섬유, 피혁, 금속 등 모든 부문에서 집중률이 높다. 공장들은 대부분 변두리지역에 있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규모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국제적인 박람회를 열며, 국제적인 교역장소로서 큰 몫을 하고 있다.

거리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동양 이상으로 극진하여 놀라움을 자아낸다.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시하는 사회의 가치관이 돋보이는 면이라고 하겠다. 이는 1365년 루돌프 4세에 의해 창설되어 지성의 전당으로 자리잡은

빈대학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 중의 하나로서 프랑스 파리대학의 구조와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의 건물을 모델로 한 위엄과 친근함을 지닌 이 정신문화의 본산은 18세기 중엽 신성로마제국의 여제 마리아 테레시아의 교육개혁으로 큰 성장을 이룩했다. 의학, 법학, 역사학 분야에 남긴 빈 학파의 발자취는 빛난다. 현재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지금까지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링슈트라세와 슈테판스돔

도시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타원형의 '링슈트라세(환상도로)'는 수도 빈의 심장이다. 링슈트라세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중세기에 만들어진 축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신시가지지를 세운 데서 시작되었다. 1865년, 10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을 본 링슈트라세는 90여 개의 거리와 광장, 500여 개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국회의사당, 프랑스 고딕식 봉헌교회, 시민극장, 국립오페라회관, 빈대학, 시청, 예술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호프부르크, 국립박물관 등이 손꼽힌다.

이곳은 빈 시민들에게 '안쪽세상'으로 인식된다. 쾨니히그레츠 전투에서의 패배, 비스마르크의 파리입성, 증권파동 등 제아무리 수많은 사건들로 들끓어도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깥세상'의 일이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의연하게(?) 축제를 벌였다. 이런 웅골찬 분위기는 빈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시내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슈테판스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다. 12세기 중엽에 세워졌다가 화재로 손실되어 200년 후인 1433년에 재건된 고딕식의 슈테판스돔은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당시 위력을 떨치던 터키군은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빈을 침공하고 슈테판스돔에 ‘이슬람의 초승달’을 반짝이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더욱 무참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민들은 한마음이 되었고 건물은 물론, 터키의 화포를 녹여 만든 푸머린종도 복원하였다. 슈테판스돔의 외벽에 박힌 터키군 포탄 위에 개머리를 조각하여 매달아 놓음으로써 터키군에게 당한 모욕을 이겨내기도 하였다. 높이 137m에 이르는 돔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빈 시내는 그야말로 성냥곽에 불과하다. 체코와 헝가리까지 모두 손바닥 안에 들어온다. 거기에는 수백여 점의 그림, 바로크 제단, 푸머린, 수천의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는 카타콤베(지하납골묘), 합스부르크 권력의 토대를 마련한 황제 프리드리히 III세의 묘도 있다.

한편, 빈은 17세기 말 궁중귀족문화의 본산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1,400여 개의 방을 지닌 원브룬성은 베르사유궁의 화려함과 겨뤄보겠다는 의기가 당찬 곳이고, 귀족여름별장의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뽐내는 벨베데레¹⁾와 13세기 말 합스부르크

크 통치자들의 호사스런 생활을 보여주는 호프부르크²⁾,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국립도서관 건물은 빈이 자랑하는 바로크예술의 현장이다. 궁중생활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성실함을 담보로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바로크 예술이 ‘30년 전쟁’의 어두움과 허무감을 가리기 위해 허세와 과장으로 치달았다면, 빈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반짝거리고 매끄러운 경박함 대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면탐구의 세계, 그 위에 기독교적인 것과 고대적인 것을 통합시켜 새로운 조화를 이룩해 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빈의 문화에는 생명력이 있다.

문학과 미술과 음악

빈 시내에는 3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 예술사 박물관에는 합스부르크가의 번영을 상징하듯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 예술품들을 비

-
- 1) 궁전이나 주택의 위층 또는 정원의 높은 곳에 전망용으로 건조된 일종의 옥상노대(露臺). 오스트리아 바로크의 건축가 J. L.von 힐데브란트는 정원을 사이에 두고 상하 두 개의 벨베데레로 이루어진 궁전을 빈에 건축하여 풍경도 건축공간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 2) 100여 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220년경 건축되었다. 이후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이 기거하였고,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며 승마학교, 국제회의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 있다



- ◀ 요정의 샘과 벨베데레 성. 19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화려한 귀족문화를 보여준다
- ▼ 자연사 박물관

롯하여 첼리니, 티치아노, 틴토레토, 루벤스, 뒤러, 브뤼켈, 크라나하, 베라케즈 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기타 특수 조형예술 박물관별로 특별 작가전을 열고 있으며, 오스카 코코슈카와 알프레트 쿠빈 등 현대작가에 대한 관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학 또한 빈의 자부심을 높여준다. 19세기 그릴파르처, 네스트로이, 페르디난트 라이문트 등을 통해 빈은 문학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고, 20세기 이후 호프만스탈, 슈니츨러, 츠바이크, 트라클, 무질, 한트케 등은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향토와 민족성을 바탕으로 독일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문학전통은 시민들의 각별한 예술애호정신을 통해 다듬어지고 계승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쓴 시를 나무에 걸어 두거나 '문학구역', '문학의 집' 등의 문학기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작가들과 독자들이 서로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도시 빈의 진면목은 음악에 있다. 이곳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브람스, 말러, 부르크너, 쇤베르크 등 세계적인 음악의 별들이 탄생했거나 활약했다.

현대음악의 창시자로 지칭되는 작곡가 알반 베르크, 안톤 폰 베버른 등도 중후한 전통에 신선한 감각을 보태며 빈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음악가들이 살던 집들은 특별히 보존되고 있으며 곳곳에 기념상이 세워져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는 빈과 떨어질 수 없는 요소다. 도나우강과 비엔나숲의 서정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준 경쾌한 선율은 티롤 민속춤에서 파생되어 1820년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 빙빙 도는 율동적인 춤사위가 낭만적인 빈을 그리움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비엔나숲은 빈의 뜨거운 여름을 식혀주는 그늘이 되고, 울창한 나무가 절대적막을 제공하여 고요함 속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 한다. 너도밤나무, 참나무 숲 사이로 야생동물들이 오가고, 이름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순간에 슈트라우스가 순수한 가락을 뽑아내지 않았을까.

도시의 자랑인 국립오페라극장 관현악단은 위대한 빈 오페레타 시대를 열면서 밀라노의 '라 스칼라', 함부르크와 뮌헨의 오페라좌와 같은 반열에 선다. 더욱이 빈 필하모니는 베를린, 뉴욕의 교향악단과 더불어 세계를 주름잡는 명연주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해맞이 연주회는 지구상의 축제

푸머린 중 ▶
칼스키르헨. 바로크 예술의 전형으로 예술과 종교의 조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빈 소년합창단 등은 오늘날 국가 이미지로까지 발전했다.

‘비엔나커피’와 ‘호이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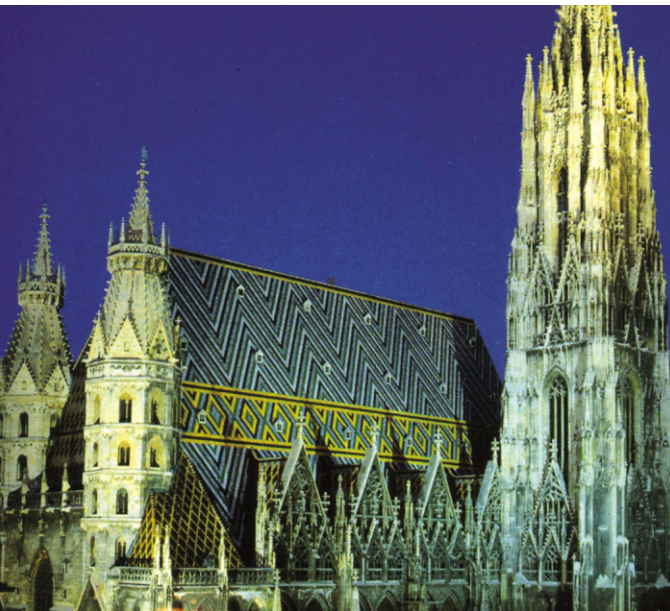
빈 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길목 모서리에 있는 카페와 와인주점, 시 외곽의 호이리게(der Heurige)에 가보아야 한다. 그곳에서는 일상 속의 예술을 찾는 시민들, 아니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는 진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1683년 전투에서 패배한 터키군이 황급히 퇴각하면서 남긴 전리품 중에서 보따리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낙타먹이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커피였다. 그때 마침 전쟁 중 정보요원으로 참여하여 공적을 세운 폴란드 태생의 콜쉬츠키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 당국은 감사를 표할 생각으로 그에게 소원하는 바가 무엇가를 물었다. 그는 터키군의 전리품인 보따리와 빈 시민권, 그리고 커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요구했다. 그는 곧 카페를 열고 터키식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님이 모여들지 않았다. 궁리 끝에 그는 커피에 우유를 잔뜩 부어보았다. 마력의 음료 비엔나커피가 탄생

하는 순간이었다.

빈에서 맛볼 수 있는 커피 종류는 모카, 블랙커피, 멜랑지, 카푸치노, 밀크커피, 커피보다 우유가 더 많은 것, 튀르키시, 생크림만 탄 커피, 카페인을 섞은 순맥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손님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주문하면, 종업원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을 향하여 그저 몇 잔이라고만 외친다. 그러면 똑같은 모습의 블랙커피가 나오는데, 맛은 신기에 가까운 달인의 손가락에 따라 변화된다. 그런 커피의 심미문화에는 금빛, 갈색, 호두 빛의 크고 작은 커피잔(이곳에서는 보통 커피잔 대신 종지 모양의 잔을 사용한다)이나 구리주전자도 까다롭게 선택된다.

‘호이리게’는 원래 ‘금년에 나온’이란 뜻의 단어에서 유래하여 ‘햇포도주’와 그것을 내는 포도주 주점을 말한다. 약 800년 전 빈 근교의 자영 포도원 농부들에게 특별한 술집 영업허가 없이 때때로 그들이 집에서 직접 생산해낸 포도주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면서 생겨났다. 전문술집이 아닌 만큼, 따뜻한 요리나 상품화된 포도주는 팔지 않지만, 포도주 철이 되면 거실을 치우고 손님을 맞는 인정어린 곳이다. 이곳에서는 술이 취하도록 마셔서는 안



- ◀ 고딕양식으로 세워진 슈테판스돔
- ▼ 와인 주점, ‘호이리게’



된다. 포도주는 삶과 예술을 따뜻하게 해주는 화로와 같다.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 위해 객석을 오가는 4중주단의 음악연주와 함께 빈의 밤은 언제나 따뜻하게 깊어간다.

빈의 사람과 문화를 만나며

빈은 여러 민족문화를 수용하고 있지만 자체의 빛깔을 잃지 않는다. 오랜 문화전통을 늘 새롭고 우아하게 다듬고 있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웃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음악 속의 이탈리아, 산업 속의 바이에른, 언어 속의 슬라브, 생활 속의 터키, 그리고 궁중 문화 속의 프랑스와 스페인은 곧 빈의 얼굴이다.

빈 사람의 기질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들의 코맹맹이 소리와 느린 말투는 묘한 정감을 안겨다 준다. 유머와 느긋함이 깃든 이들 사회에는 언어 표현상에도 딱 잘라 말하는 일이 드물다. 빈에 통용되는 농담이 있다. 한 여인이 ‘아니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마도’를 뜻하고, ‘아마도’ 라고 하면, ‘예’를 뜻하는데, ‘예’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여자도 아니라는 것. 그와 반대로 빈 사람은 ‘아니오’

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 라고 하면, ‘아마도’를 뜻할 것이요, ‘아마도’ 라고 하면, ‘아니오’를 뜻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니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화와 평화를 도시개발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빈은 찬란한 궁중귀족 문화와 우중충한 서민문화를 똑같이 자랑스럽게 내보인다. 이런 상반된 도시 풍경은 옛날과 오늘의 시대적 대립으로도 표현된다. 시 외곽 신시가지에 부는 현대과학기술의 바람은 도심의 중세 패러다임과 만난다. 작가 무질은 빈을 향하여 모순, 대립, 부정, 체념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상반감정의 도시라고 외쳐대지 않았던가. 합스부르크 왕족이 타던 쌍두황금마차가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에 바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대가 빈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인류의 소명을 새삼 깨닫는다. 7

슈테판스돔 내부 ▶
빈의 환경친화 아파트 ▼

